

미국 정치학의 성격과 정치학 교육*

백 장 제 | 서울대학교
이 소 정 | 서울대학교

세계 각국의 현대 정치학(political science)이라는 분과학문이 전문화 제도화되고 발전해 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미국 정치학(American political science)이다. 따라서 한국은 물론 각국의 정치학이 지닌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학이 지닌 성격을 규명하고 각국 정치학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의 시론적 시도로서 이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우선, 현대 정치학에서 미국 정치학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최근 미국 정치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쟁을 살펴보고, 미국 정치학의 성격을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규명한다. 셋째, 이러한 성격이 대학 수준에서의 정치학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주제어: 정치학의 정체성, 미국 정치학, 분과학문 제도화, 분과학문 전문화, 도로시 로스, 한국적 정치학

I. 왜 미국 정치학이 지배적인가?

한 자료에 따르면 살아있는 정치학자들 중 75퍼센트가 미국인이라고 한다(Marsh 외 2004, 155).¹⁾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에는 80개국에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B00008).

결쳐 15,000명의 정치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미국 내의 어지간한 대학 들에는 정치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무수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정치학계에서 지배적 존재로서 미국 정치학의 위상은 단순히 양적인 차원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표들은 1994년부터 세계정치학회가 개최해 온 패널들의 결과 출판된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의 편자들인 구딘(Robert E. Goodin)과 클링지만(Hans-Dieter Klingemann)의 분석결과 중 일부이다(Goodin 외 1996, 8). 정치학이 “국제화”(internationalize)되었다는 편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들은 미국 정치학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²⁾ 우선 정치학 각 분야의 현황을 분석한 저자 41명 중 23명이 미국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18명이 유럽 각국 대학들에 소속되어 있다. 대표성의 문제는 있겠으나 각 하위분야의 권위자들로 인정받은 학자들 중 60퍼센트 정도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글에서 인용된 저자와 저서를 분석한 결과 대략 85퍼센트 정도가 미국인이다(〈표 1〉 참조). 인용의 빈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더욱 편향된 모습을 보여 준다. 정치학 전 영역과 각 하위영역, 그리고 하위영역들을 가로지르면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들, 곧 당대 정치학의 주도적 학자로 인정되는 인물들은 모두 미국인이거나 미국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표 2〉가 보여준다.

〈표 1〉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n=35)와 저서(n=14)

저자		저서	
미국인	비미국인	미국인	비미국인
29인 (83%)	6인 (17%)	12권 (86%)	2권 (14%)

출처: Marsh & Savigny, "Political Science as a Broad Church," p. 160.

- 1) 이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들이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확도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정치학자들의 수에 있어서도 이 정도로 미국 정치학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다.
- 2) 뒤에 서술하듯이, 이들이 정치학의 “국제화”에서 의미한 바는 “미국적 정치학”(American science of politics)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표 2〉 정치학의 주도적 학자

	전영역에서 인정	하위영역에서 인정	통합적 역할
G. Almond	x	x	x
B. Barry	x	x	x
R. Dahl	x	x	x
A. Lijphart	x	x	x
M. Olson	x	x	x
K. Shepsle	x	x	x
T. Skocpol	x	x	x
B. Weingast	x	x	x
S. Verba	x	x	x

출처: Robert Goodin and Hans-Dieter Klingemann, "Political Science: The Discipline," in Goodin and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p. 40.

이와 같이 미국 정치학이 세계정치학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연관된 몇 가지 요인을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정치학이 누리게 된 선점의 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사회과학의 정당한 전문적 분과학문(discipline)으로서 현대적인 정치학(political science)이 제도화되는데 있어서 미국은 서구보다도 반세기 정도가 빨랐다. 주요 대학들에 정치학파가 생기고 동종의 학문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학술활동을 조직화하는 학회가 창립되고 이들의 연구물을 회람시킬 수 있는 학회지가 창설되는 것을 전문적 분과학문의 제도화 기준이라고 볼 때, 미국은 이미 19세기 말에 정치학이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제도화되었다.³⁾ 이후 미국 정치학은 전문적 분과학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Stein 1995, 173-176).

반면 서구 각국에서 정치학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제도화된 것은 미국보다 훨씬 뒤쳐졌다. 프랑스의 경우, 1950년경까지도 정치학은 역사학과 법학의 사생아 정도로 여겨졌으며, 프랑스정치학회(French Political Science

3) 이에 대해서는 Dorothy Ross,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이후 여기서는 백창재·정병기 역,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나남, 2008을 인용함), 제2권, 제8장을 참조.

Association)와 학회지(*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가 생겨난 것도 1949년과 1951년이였다. 또 독일에서도 대학에 정치학 교수직이 마련되고 독일정치학회(German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가 수립된 것은 1951년이였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1950년이 되어야 영국정치학회(British Political Science)가 수립되었고 3년 후 학회지(*Political Studies*)가 창설되었다(Stein 1995, 176-182). 정치사, 외교학, 국가학, 정치사회학 등에서의 풍부한, 혹은 월등한 지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서구 각국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제도화가 미국보다 반세기 늦어졌던 것이다.

정치학의 전문화·제도화가 미국에서는 빨랐고 서구에서는 늦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학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회경제구조나 문화적 전통, 정치 제도 등에 있어서는 해답이 찾아지기 어렵다. 미국 정치학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시기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간에는 이러한 요인들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tein 1995, 183-184).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고등교육체제와 인접학문들의 역할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정치학이 독립적인 사회과학 분과학문으로 인정받고 대학체제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인접학문들과 기존 대학체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19세기 말의 미국은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우선 대학체제가 덜 발달되어 있었고 경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1860년대 이후의 다양한 대학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분과학문과 학과들이 설립되고 대학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분과학문이 대학체제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한편 역사학과 철학, 법학 등 인접학문의 전통이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저항과 텃세도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경제학이나 사회학 등 연관 사회과학 분과학문들도 유사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제도화를 이루는 상태였으므로 이들의 견제도 덜 받았다(Stein 1995, 185-186). 신생 분과학문의 탄생에 큰 장애가 없었던 셈이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 정치학이라는 신생 분과학문이 생겨나는데는 지대한 견제와 장애가 존재했다. 역사학, 철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등 일찍부터 발달한 인접학문들의 위세 밑에서 새로운 분과학문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고, 수백년의 전통을 지닌 대학체제의 경직된 틀은 구조적 혁신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반세기 일찍 미국에서만 전문화·제도화를 이룬 정치학(political science)은 원래 “미국의 발명”(American invention)이자 “미국적 정치학”(American science of politics)이었던 셈이다(Gunnell 2002, 339). 미국 정치학의 발전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밋(Albert Somit)과 타넨하우스(Joseph Tanenhaus)는 자신들의 저서 초판본의 제목을 『정치학의 발전』(*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이라고 명명했던 바 있다(Somit 외 1967). 제목에서 “미국”(American)이라는 단어가 오류로 빠졌다는 정오표가 첨부되었으나, 이 사고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학이 곧 미국 정치학이며, 미국 정치학이 곧 정치학이라는 자부심, 혹은 학문적 소비니즘의 소산일 수 있는 것이다(Gunnell 2002, 340). 그러나 이러한 “편견”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학은 이미 반세기 전에 독립적 분과학문으로서 전문화·제도화를 이루고 발전해 온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야 대학에 교수직과 학과가 설립되고 학회와 학회보가 창설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전혀 상반된 시각에서 미국 정치학의 독특성을 진단한 학자도 있다. 크릭(Bernard Crick)은 『미국 정치학』(*American Science of Politics*)에서 미국 정치학이 기원상 특정한 미국의 자유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독특한 학문이라고 규정했다(Crick 1959, 213-240). 나아가 크릭은 미국 정치학이 “잘못된 과학주의”(false scientism)에 빠져 있으며, 일종의 “미국주의 이데올로기”(American ideology)와 같은 역할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까지 비판했다(Crick 1962). 따라서 미국 정치학은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쉽사리 “수출”되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크릭의 전망과는 달리 미국 정치학은 20세기 후반 들어 널리 전파되고 수출되었다. 서구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정치학이 분과학문으로서 제도화·전문화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치학이 그 기본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Gunnell 2002, 341). 반세기 앞서 성공적으로 전문화·제도화를 이룬 미국 정치학의 현실적(practical) 우월성 때문이다. 후발자는 성공적인 선발자를 따라하기 나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정치학의 시각과 개념과 방법론들이 “우월한 것”으로 전파된 데 있다. 반세기 전에 이미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거둔 미국 정치학의 성공, 그리고 이차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냉전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급속히 커진 미국 정치학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정치학의 “내용”까지 우월성을 이

정받은 것은 이해할 만하다. 미국 정치학의 개념적, 방법론적 도구들은 미국 정치 구조와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이를 연구하도록 고안된 것이었는데, 이들이 다른 정치체들의 기술과 평가에도 사용되어졌고 해외에서 그렇게 마케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미국 정치학은 세계 정치학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인문·사회과학을 여러 분과학문으로 구체화하고 이 틀 안에서 정치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존재를 논하는 한, 미국 정치학이 가장 일찍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전문화·제도화되었고, 이 미국 모델이 수출되어 각국의 정치학이 전문화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학계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1982년 세계정치학회의 주관으로 수행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각국의 주도적 학자들 대부분이 자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에 높은 민감성(sensitivity)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Andrews 1982, 1-6). 자국의 특성에 맞는 정치학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여기에 세계 정치학계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제도화된 분과학문으로서 미국 정치학의 모델을 따르면서, 이 모델을 따라 오는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자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개척해가야 하는 것이다.

II. 미국정치학의 정체성 문제

사회과학의 독립적 분과학문으로서 전문화된 현대 정치학(political science)의 지배적 존재인 미국 정치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세계 정치학계에 미치는 미국 정치학의 압도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근 미국 정치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연 (미국) 정치학이 단일한 학문이며 특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지하듯이 “행태주의 혁명”의 불길기 스러진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학계에는 단일한 방법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합리적 선택론이 맹위를 떨치고는 있으나, 신제도주의나 구성주의 등 다른 접근들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말 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제3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민주화

되면서 “정치발전”이나 “전체주의”와 같은 정도의 공통의 주제와 문제의식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정치학계는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서로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Almond 1988, 828), “서로 간에 논쟁하거나 배울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파편화(fragmentation)되어 있다(Freeman 1991, 15-16).” 경이로울 정도의 분화와 상호간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주류 정치학자들조차 “정치학의 공통점은 근대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것일 뿐”(Katznelson 외 2002, 25)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이 때문에 정치학이 과연 단일한 분과학문인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하위 분과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학사(History of Political Science)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치학의 동질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건넬(John G. Gunnell)인데, 그는 정치학이 “다원성(plurality)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 다원성은 전문화와 다양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치학의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 건넬의 시각이다. 즉, 애초에 정치학은 국가 연구와 연관된 다양한 지적 노력들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와 같은 존재로 시작되었는데, 20세기 전반기에 이 노력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학문적 중심점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지만 행태주의의 종말과 함께 이 시도도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Gunnell 2006, 21). 문제는 이 다원성이 곧 정체성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서로 다른 하위분야들 간에 정치학이 다원적이라는 데 대한 합의 이외에 정체성과 단일성을 형성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Gunnell 2006, 21)

이에 대한 주류 학계의 대응은 최소주의적으로 정치학의 정체성을 모색하는데 모아진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세계정치학회의 연구는 세계적 수준에서도 정치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적 다양성과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정치학은 “무지개 과학(rainbow science)과도 같지만, “권력”이라는 공통의 대상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Andrews 1982, 4-5). 15년 후에 세계정치학회의 유사한 작업을 책임졌던 구던과 클린지만은 보다 낙관적이다. 이들도 정치학 전 분야를 관통하는 단일한 방법론이 없고 정치학이 분화되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통의 핵심(common core)이 있기 때문에 정치학은 분화와 동시에 통합되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정치학이란 “권력의 사회적으로 제어진 사용”(socially constrained use of power)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정치 세계에 대한 명제를 추구하는 체계적 탐구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의해 정치

학 전체가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태주의나 합리적 선택론과 같이 단일한 방법론의 존재에 집착하던 시기는 지났으며, 신제도주의나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공존하는 “화해”(rapprochement)와 “절충주의”(eclecticism)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들은 진단한다. 그만큼 정치학이 성숙해졌고 분열을 극복하는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Goodin 외 1998, 3-11).

주류 학계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인 알몬드(Gabriel Almond)는 이들보다 더 공격적이다. 알몬드는 정치학사 분야에서 다원성을 주장하는 것은 곧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과학적으로 매우 유해한 현상이라고 비난한다. 정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학에 대한 권위 있는 관점이 존재하는데, “입증과 추론에 기초하여 객관성을 추구하는 공동의 노력”(shared search for objectivity based on rules of evidence and inference)이 정치학이라는 발전적-절충적(progressive-eclectic) 관점이 그것이다(Almond 1996, 51).⁴⁾ Almond는 정치학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까지 소급하면서 이 전통이 19세기에 마르크스, 프로이드, 베버 등에 이르러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20세기 들어 진정한 전문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Almond 1996, 50). 이후 메리엄(Charles Merriam)의 시카고 학파, 행태주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론의 수학적·연역적 방법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정치학이 사회과학의 주요 분과학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학의 역사를 발전적이고 절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라는 것도 발전의 큰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자 절충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Almond 1996, 71).

미국 정치학계에서 정체성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정치학계에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학이 단일한, 통합된 학문이 아니라는 지적이나 정치학의 분절화 현상은 미국 정치학의 시작과 함께 존재해 왔다. 경이롭게도 최초의 전문적 정치학 학술지(Political Science Quarterly)의 첫 호의 권두 논문의 첫 번째 문장은 “정치학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The term ‘political science’ is greatly in need of definition)였다(Andrews 1982, 1). 이후에도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4) 이 정의는 사실상 정치학과 타학문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최소주의적 정의이다.

(표 3) 대표적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의 접근방법

<i>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i>					
1975~1979년			1980~2002년		
행태주의	규범적 이론	기타 비실증주의	행태주의	규범적 이론	기타 비실증주의
73%	4%	10%	56%	6%	23%

<i>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i>					
1975~1979년			1980~2002년		
행태주의	규범적 이론	기타 비실증주의	행태주의	규범적 이론	기타 비실증주의
61%	11%	13%	46%	20%	13%

출처: Marsh and Savigny, "Political Science as a Broad Church," pp. 162-3.

의문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행태주의 혁명이 진행되던 1950년대에도 정치학이란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수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묘사하는 집합 명칭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주장이 있었다.⁵⁾ 이렇게 본다면 정치학은 지적, 학문적 응집력에 의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통합되어 있다기 보다는 제도의 관성(inertia), 혹은 생존력 덕분에 원래대로 하나의 분과학문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Sigelman 2006, 46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학문으로 제도화된 미국 정치학은 지난 100년간 지속되어 왔고, 당분간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의 전문적 분과학문으로서 미국 정치학은 전반적으로 실증적 과학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절충주의의 경향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해(understanding)보다는 설명(explanation)과 직접 관찰(direct observat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행태주의와 수학적 연역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Marsh 외 2004, 161-164). 이는 대표적인 두 학술지에 지난 30년간 실린 논문들을 분류해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표 3〉 참조).

5) Leonard White, "Political Science, Mid-Century," *Journal of Politics* 12, No. 1 (1950), pp. 13. Lee Sigelman, "The Coevolution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No. 4 (2006), p. 465에서 재인용.

III. 미국 정치학의 양면성

전문적 분과학문으로서 미국 정치학은 실증적 과학주의를 표방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과학화 자체가 전문화를 가져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전문화의 욕구가 과학화를 추동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tein 1995, 186). 미국 정치학의 발전과정에서 과학화와 전문화 양자는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를 이끌며 미국 정치학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학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에 관한 로스의 권위 있는 연구(Ross 1991)⁶)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학이 전문적 분과학문으로 제도화되어 간 과정을 설명한다.

로스는 20세기 전반에 구축된 미국 사회과학 각 분과학문들의 성격이 무역사적이며 과학주의적, 과정중심적이고 가치(value)보다는 통제(control)와 도구성(instrumentality)에 초점을 둔다고 파악한다. 미국 사회과학의 이 독특한 성격을 로스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통해 설명한다. 원래 미국 예외주의는 독립과 입헌 공화정의 수립 자체를 "역사의 완결"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역사변화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미국이 독특한(unique)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미국 예외주의 비전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는 질적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근본적 제도들의 정교화와 양적 팽창이 될 것이었다(Ross 1991, 23-29).

미국을 신의 섭리와 자연법의 구현이라고 믿었던 이러한 종교적, 도덕철학적 신념은 19세기 들어 미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세속화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남북전쟁을 겪고 이후 산업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념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예외주의를 도덕철학과 종교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지탱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객관적 학문에 의해 이 역할을 수행하려 한데서 미국 사회과학의 각 분과학문들이 형성되었다는

6) Ross,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로스의 논의에 대한 소개는 다음 글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백창재·정병기, "로스의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문제," 『한국정치연구』 16, No. 2(2007), 1-25.

것이 로스의 주장이다(Ross 1991, 53-64). 우선 역사정치학과 정치경제학이 오랜 도덕철학적 전통으로부터 독립하여 분과학문으로 수립되었고, 동일한 토대에서 사회학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도금기(the Gilded Age)에 이르러 예외주의의 위기는 확산, 심화되었다. 구대륙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겪고 있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완결이 아니라 역사변화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열려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미국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없는 계급갈등과 급진적 변화는 피해가는 길을 발견하려 했다. 이들의 새로운 전략은 역사변화의 길은 열여 두되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미국적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계속 확장되는 개척지가 계급갈등을 완화시켜 준다는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의 "변경론"(frontier thesis)처럼 미국이 지닌 특수한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이 산업사회의 필연적인 계급갈등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금기의 사회과학자들은 산업화가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 최초의 세대였으며, 이 사회문제(the social question)를 미국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불변의 역사적·자연적 토대들을 신속히 발견해냈고, 역사의 파괴적인 효과를 물리쳐 주는 미국의 특수한 조건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내었다(Ross 1991). 이 과정에서 각 분과학문들, 특히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political science)이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각 대학들에 학과들이 제도화되었고 각각의 학회와 학회보들이 창설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자기 분과학문 영역을 최대한 전문화시키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자기 영역의 독특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혁신기의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주의와 씨름하면서 자유주의 원리들과 그 역사관을 토대로 분과학문들을 공고히 했다. 경제학, 사회학 및 정치학에서 이루어진 이론연구와 경험연구의 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이론적 발전과 사회개혁 실천의 결합을 시도했다(Ross 1991, 436-439). 혁신기 후반에 등장한 창조적 사회과학자 세대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과학 모델들을 창출하면서 미국 사회과학의 윤곽을 재수립했다. 이들의 혁신적 작업은 1920년대 들어 점점 가시화되었는데, 전문적 특화의 증대,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대한 철저한 입장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역사-진화론적 사회과학 모델에서 벗어나 단기적 과정들에 초점을 둔 특화된 과학으로 옮

거가는 과학주의의 도래였다(Ross 1991).

로스가 강조하는 1920년대 과학주의의 도래는 곧 미국 예외주의의 위기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했다. 천년왕국적 공화정이 영원하리라는 종교적·도덕철학적 신념은 이미 무너졌으나, 미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안정적으로 지속되리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사회과학은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면 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먼저 물리학을 모델로 하여 자연과 인간 본성의 필요에 뿌리를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며, 사회학자들 및 정치학자들은 변화하는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경험적 과학을 추구했다. 이들은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의 수립을 목표로 세우고, 도구적 실증주의의 영향 아래 실증적인 과학적 방법을 탐구의 기준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사회과학의 각 분과학문들은 보다 과학적일수록 보다 전문적이고 제도화된 분과학문으로 평가되었다.

1920년대에 분과학문들 내부에서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주의의 승리로 굳어졌다. 경제학의 경우 제도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신고전주의자들은 이를 과학이 아니라 단순한 좌파 정치운동으로 간주하고 무시했다. 사회학에서는 더 단기적인 과정들에 초점을 두면서 과학주의의 요구를 수용했다. 정치학에서도 역사적이고 규범적인 정치학 모델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대신 메리엄(Charles Merriam)으로 대표되는 과학적 정치학, 심리학과 결합된 정치학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컨대 단기적 과정에 대해 도구적 실증주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과학주의가 미국 사회과학에 “강림”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과학주의가 현대 미국 사회과학을 지배하게 된 시작이라는 것이다(Ross 1991).

로스의 논의는 미국 정치학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관해 세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 정치학을 포함하여 미국 사회과학의 각 분과학문들이 미국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수립되었고 미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변화, 발전했다는 점이다. 19세기 전반기에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새로운 국가”(New Nation)가 구대륙의 구체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정통성,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신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보하려던 시도에서였다.⁷⁾ 정치

7) 그렇다고 해서 초창기 미국 사회과학이 순전히 내생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Lawrence Goldamn, “Excep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Reconsidered,”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 No. 1 (1998), pp. 1-36 참조. 19세기 후반까

학의 경우 이는 미국 공화정의 정통성을 튼튼적 기원에서 찾은 역사정치학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산업화 과정에 놓이게 되면서 미국 사회과학의 임무는 산업사회가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듯 보이는 계급갈등의 사회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다시 도금기와 혁신기를 거치면서 이 임무는 자유주의적 합의를 공고히 하고 지속시키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자유주의 사회의 과정과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되었다. 정치학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행정 연구, 집단이론, 심리학적 접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컨대 미국 정치학과 사회과학은 미국적 문제의식의 소산이었으며, 사회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적 효용성에 의해 성과가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사회과학의 특성으로 내세우는 과학주의와 보편성은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미국적 문제 해소의 소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사회과학의 각 분과학문들이 20세기 초반에 실증적 과학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도금기와 혁신기를 거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주의적 합의를 이룬 후 자유주의 사회의 과정과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적 접근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과학이 지녔다고 주장되는 보편성은 최소한 그 기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미국적이다. 정치학에 있어서 계급이 사라지고 벤틀리(Arthur Bentley)의 집단이 중심이 되었다가 다시 메리엄의 개인 심리에 초점이 두어지게 된 것은 미국 정치학이 보다 실증적·과학적이 되었음과 동시에 미국정치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분과학문이라는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주의는 각 분과학문들이 전문성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 정치학이 사회과학의 독립된 한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내어야 했다. 굿나우(Frank J. Goodnow)가 정부와 행정의 연구

지 유럽의 사회과학이 대거 수입되었고 많은 유학생들이 유럽 대학들에서 수학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식은 다분히 미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유럽의 사회이론들도 이에 근거하여 선별적으로 수입되었다. 예컨대 경제학에서는 맬더스를 제외시키고 스미스만이 수입되었다. 정치학에 있어서도 독일 역사주의가 수입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역사정치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목적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는 것이었다. Ross, 『미국사회과학의 기원』, 제3장 참조.

에 몰두하고 메리엄이 보다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는 심리학을 도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데는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동기가 작용했다. 요컨대 과학화가 진전되면서 당연히 전문가가 이루어졌던 반면, 후자가 전자를 추동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사회과학 자체 및 미국 정치학이 지닌 양면성에 주목하게 된다. 방법에 있어서는 과학주의와 보편성, 객관성을 주장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적 문제의식의 소산이자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정치학의 개념이 적의 성격과 우방의 성격에 따라 변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나찌 독일이나 소련에 대한 미국 정치학계의 평가가 서로 적이 되기 이전에는 무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이기까지 하다가 적이 된 후 “전체주의”로 비난할 정도로 부정적이 되었으며 이 필요성에 따라 미국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치학이 지닌 근본적 딜레마, 즉 국적과 역사적 상황을 초월한 객관적 과학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적 가치와 사회적 효용성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렌(Ido Oren)의 진단이다(Ido Oren 2003). 곧 미국 정치학의 양면성인 것이다.

IV. 대학 교육에 나타난 미국 정치학의 양면성

분과학문으로 제도화된 미국 정치학이 과학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사회적 효용성을 추구해 온 것은 비단 연구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드러난다. 대학 수준의 교육이 곧 연구의 소산이며 교육을 통해 미국 정치학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일이다. 대학 교과과정과 주요 대학교재들의 내용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다음 표들은 미국 주요대학들의 정치학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목들이다. 동부, 중부, 서부의 대표적 대학들로 프린스턴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과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스탠포드 대학교는 2007년 전 과정의 교과목들이며, 다른 두 대학은 2007년 봄 학기의 교과목들이다. 이 표들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이 드러난다.

우선, 교과목의 수가 대단히 많고, 각 교과목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당연

〈표 4〉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학 교과목 구성(학부-대학원 통합, 2007년)

방법론	미국정치	정치사상	비교정치, 지역, 국제관계
—중급— 〈정치학 방법론〉 〈정치학방법론II〉 〈정치학방법론III〉 〈정치학연구하기〉 〈정치학의 게임이론입문〉 〈정치학 자료분석〉	—기초— 〈미국정치 입문〉 —중급— 〈정당, 이익집단, 언론, 선거〉 〈도시정치〉 〈미국법 입문〉 〈정치와 정책〉 〈사법정치와 헌법〉 〈조직과 정책〉 〈공직의 윤리와 정치〉 〈민주주의와 합의의 소통〉 〈미국정치제도〉 〈헌법과 사법정치: 인권〉 —고급— 〈미국정치 접근법〉 〈캠페인, 선거, 여론〉 〈임기제한과 미국민주주의〉 〈인종과 미국정치〉 —고급 및 대학원— 〈미국의 건국〉 〈대통령선거분석〉 〈미국정치행태의 주요이슈〉 〈캠페인, 선거, 여론〉 〈언론과 정치과정〉 〈미국정치제도〉 〈캠페인, 선거, 여론II〉	—기초— 〈정치철학 입문〉 〈법적 구성과 윤리적 제도〉 —중급— 〈정의론〉 〈인종 및 인종갈등의 철학적 이슈〉 —고급— 〈관용과 편견〉 —고급 및 대학원— 〈롤즈의 정치철학〉 〈그리스 정치경제〉 〈그리스 정치경제〉	—기초— 〈석유, 체제변동, 갈등〉 〈권위주의 중동의 일상정치〉 〈식량과 정치〉 〈내전의 역사〉 〈국제관계입문〉 〈비교정치체제입문〉 〈경제발전의 정치〉 —중급— 〈민주주의, 발전, 법치〉 〈변화하는 국제안보〉 〈발전의 정치경제〉 〈NGO와 민국의 발전〉 〈아프리카의 내전과 폭력〉 〈비교민주주의발전론〉 〈비교민주정치론〉 〈미국외교의 전쟁과 평화〉 〈행부기의 역사〉 〈세계정의의 이해〉 〈민주주의와 독재〉 〈중국정치〉 〈이슬람과 서방〉 —고급— 〈인종간 폭력의 이해〉 〈미국-이란 관계〉 〈단국과 미국 외교정책〉 〈민주화와 인권 세미나〉 〈국제갈등해소와 관리〉 〈국제통상의 정치와 경제와 법〉 〈근대이란의 정치〉 〈동아시아 정치경제〉 〈세계정치의 복잡성 관리〉 〈국제기구론〉 〈관용과 민주주의〉 〈제도화 인종문제〉 〈시민사회, 자선, 비영리섹터〉 〈민주주의의 정치와 경제〉 〈멕시코 정치〉

〈표 4〉 계속

방법론	미국정치	정치사상	비교정치, 지역, 국제관계
			-고급 및 대학원- 〈국제관계이론I〉 〈국제관계 워킹〉 〈관념과 국제안보〉 〈민주주의, 발전, 법치〉 〈권위주의 정부의 논리〉 〈정치경제학의 기초〉 〈국제안보 세미나〉 〈발전의 정치경제〉 〈비교정치 워킹〉 〈중국 개혁의 정치경제〉 〈국제관계이론II〉 〈국제갈등해소 및 관리〉 〈국제관계워킹〉 〈집합행동의 정치〉 〈민주주의의 모델〉 〈정치와 지리〉 〈중국 사회과학〉 〈조직과 정치〉 〈국제갈등해소 콜로키움〉 〈국제안보 연구 세미나〉 〈국제관계 리서치〉 〈국제갈등해소와 관리〉 〈미국외교정책결정론〉 〈국제기구〉 〈중앙아시아정치〉 〈국가 건설〉 〈세계정의의 이해〉 〈탈공산주의의 정치경제〉 〈비교민주화〉 〈정치문화〉 〈민주주의와 독재〉 〈중국정치〉 〈중국사회과학〉 〈현대중국국제관계〉 〈국제안보 리서치 세미나〉 〈비교정치방법론〉 〈비교정치워킹〉 〈비교정치경제:선진국〉
총 20과목	총 22과목	총 8과목	총 72과목

(표 5)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교과목 구성(2007년 봄)

방법론	미국정치	정치사상	비교정치, 지역, 국제관계
<계량 분석과 공공정책> <고급계량분석> <정치학의 수학적 모델> <연구방법론> <방법론 세미나>	<미국정치론> <미국 민주주의> <헌법 해석> <시민적 자유> <차별과 법> <여론> <정당 정치> <의회 정치> <대통령과 행정부> <정치체제의 발전> <공공 리더십과 공공정책> <도시정치> <여성과 젠더의 정치> <인종과 미국정치> <스포츠의 정치경제> <미국정치 세미나>	<정치이론> <고대 및 중세 정치이론> <무소에서 니체까지> <근대 정치이론> <보수주의 정치사상> <민주주의 이론> <정의사회> <윤리와 공공정책> <미국정치사상> <정치이론 세미나>	<비교정치입문> <유럽정치> <스포츠의 정치경제> <발전도상국 정치> <비교정치경제> <동아시아 정치경제> <중국정치> <일본정치> <중동 정치체제> <아프리카 정치> <라틴아메리카정치>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유럽 민주주의> <서구 정치경제> <중·동구 정치> <공산주의 이후 정치> <비교정치 세미나> <국제관계론> <국제관계이론> <전쟁과 평화> <국제협력> <국제정치경제> <평화연구> <미국외교정책> <국제관계와 아시아> <러시아와 세계> <국제기구> <국제관계 세미나>
총 5과목	총 16과목	총 10과목	총 28과목

히 주요 대학들의 정치학과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으나, 그만큼 정치학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곧 분과학문으로서의 전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이례적일 정도로 방법론 과목들이 많고 규범이론 분야 과목들이 적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카고 대학의 경우에는 정치사상/이론 과목들이 세분화되어 다수 개설되어 있으나, 스트라우스주의적인 정치사상사 과목들 중심이기 때문에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규범 이론 과목들 보다는 방법

〈표 6〉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교과목 구성(2007년 봄)

방법론	미국정치	정치사상	비교정치, 지역, 국제관계
〈자료분석 입문〉 〈선형모델 입문〉 〈정치이론과 사회적 신경 과학〉 〈확률론〉 〈다층분석 입문〉 〈고급 베이저안 확률〉	〈종교와 미국정치〉 〈여론〉 〈선거의 정치경제〉 〈도시정치〉 〈미국 대통령 연구〉 〈미국 정당론〉 〈헌법연구 입문〉 〈민권과 시민적 자유〉 〈미국 헌정주의의 기초〉 〈미국 건국〉 〈미국정치 개관〉 〈인종과 정치〉 〈사법부〉 〈헌법과 정부구조〉 〈미국정치 워샬〉	〈실용주의와 정치〉 〈패미니즘 이론 입문〉 〈권력과 자유〉 〈재앙, 서술과 철학〉 〈Springtime for Hitler and Germany〉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철학, 인종과 인종주의〉 〈토크빌과 밀〉 〈칼 슈미트와 정치신학〉 〈정치와 인간 본성〉 〈유대 정치사상〉 〈플라톤〉 〈루소와 니체〉 〈자서전과 근대정치이론〉 〈뉘보아의 정치사상〉 〈사르트르와 파농의 실존주의〉 〈법철학 세미나〉 〈정치이론 세미나〉 〈교육과 도덕심리〉 〈민주적 책임성〉	〈환경과 안보〉 〈이주와 경제발전의 정치〉 〈사회정책, 국가, 내전〉 〈국제정치와 안보〉 〈19세기 국제정치사〉 〈발전의 정치경제〉 〈민주주의와 IT 혁명〉 〈국제통상의 정치〉 〈동남아의 국가, 사회, 민주화〉 〈정치커뮤니케이션〉 〈조직의사결정〉 〈전쟁과 민족국가〉 〈대중국가의 이론과 실제〉 〈조직, 이념과 정치변동〉 〈현실주의 세미나〉 〈전략론〉 〈국제관계입문〉 〈공공정책의 정치경제〉 〈의사결정의 원리와 기초〉 〈인종, 민족주의와 갈등〉 〈미국 안보정책〉 〈중동정치〉 〈세계정의론〉 〈국제관계이론 세미나〉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비교역사분석〉 〈권위주의 체제〉 〈발전의 정치경제〉 〈비교정치 연구방법〉 〈사회이론과 경제〉 〈초국적 생산과 정치〉 〈국가와 시장의 공동 진화〉 〈국제안보 워샬〉 〈일본정치제도〉 〈감대국 정치 세미나〉 〈동아시아 워샬〉 〈정치경제 워샬〉 〈비교정치 워샬〉 〈사회적 네트워크〉 〈국제관계 워샬〉
총 6과목	총 15과목	총 21과목	총 40과목

론 과목들이 많고, 이 과목들이 강조되어 있다. 방법론 과목들은 계량적 방법이나, 게임이론과 모델링 등 수학적 방법들, 그리고 정치심리학 등 실증적 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미국 정치학의 과학주의 편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셋째, 미국정치 분야의 과목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전체 교과목들 중 대략 4분의 1의 과목들이 미국정치에 관한 것들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주지하듯이 우리 대학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정치학의 기원이 미국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었고 아직도 미국정치가 미국정치학의 중심에 있음을 암시한다.

미국정치 분야 교과목들은 대체로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축으로는 정치제도와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의회,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각 제도에 대한 교과목들이 아우러져 미국정치를 가르친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대로 미국정치학이 제도화되던 20세기 초에 이미 정치현상을 과정 중심으로 보게 되었던 미국 정치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축으로 미국정치 교과목들은 민권, 인종, 젠더, 차별, 도시정치 등 특정한 사회문제와 정치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미국사회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미국정치학은 미국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효용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들의 정치학 교과과정에는 비교정치, 지역정치, 국제관계 과목들이 경이로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목들은 물론, 민주화와 발전, 인권, 인종 등 비교정치의 주요 이슈들과 이론적 쟁점들에 관한 과목, 그리고 안보와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이론적·실용적 과목들이 망라되어 있고, 최근에는 현실 국제정치를 반영하여 이슬람, 테러, 자원에 관한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 정치학에서 비교, 국제정치 분야가 크게 발달하게 된 것은 이차대전 후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에 오르면서 생긴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이 필요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세계 각 지역과 국제문제에 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만큼 미국 정치학이 미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미국적 문제의식의 소산임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교과목 구성과 더불어 정치학 교육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학 입문 교

〈표 7〉 전형적인 〈비교정치학 개론〉 강의내용

	뉴욕대학교 v53.0500 〈비교정치학 개론〉	로체스터대학교 PS101 〈비교정치학 개론〉
제1주	과목개요 및 비교정치학의 현황	과목개요, 민주주의
제2주	정치체제, 민주주의	민주화
제3주	민주화	민주화 사례
제4주	민주주의 공고화	인종갈등
제5주	선거와 투표	혁명
제6주	정당일체감	혁명 사례
제7주	정당체제	정치제도: 권력구조
제8주	경제개혁의 정치	선거
제9주	부패	정당체제
제10주	인종갈등	정치참여
제11주	사회자본	정치문화
제12주	민주주의 공고화	사회자본

과목들의 내용이다. 주지하듯이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에는 〈정치학 개론〉(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과 〈비교정치학 개론〉(Introduction to Comparative Politics)이 우리의 〈정치학 개론〉과 유사한 정치학 전반에 관한 입문 교과목으로 개설되며, 〈미국정치개론〉(Introduction to American Government)이 마치 과거 우리의 〈국민윤리〉와 같은 시민교육용 교과목으로 개설된다. 대표성은 없으나 주요대학에 개설된 두 교과목들 중 쉽게 구할 수 있던 강의계획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 몇 종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표 7〉은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와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의 비교정치학 개론의 내용이다. 두 과목 모두 학부 정치학 입문과목들이며, 상당히 표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⁸⁾ 이 강의들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치과정과 제도에 대한 소개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정치의 주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정치과정 및 제도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정당, 선거, 정치참여 및 정치문화와 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정치와 그 연장선에서

8) 사실 이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으며, 우리의 비교정치 개론이나 정치학 개론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만큼 우리 정치학이 미국 정치학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표 8〉 전형적인 〈미국정치 개론〉 강의내용

	하버드대학교 Government30 〈미국정치: 새로운 시각〉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PS101 〈미국정치 개론〉
제1주	과목개요	과목개요
제2주	선거와 미국민주주의	민주주의
제3주	건국과 미국헌법 사법부	헌법
제4주	연방제	미국정치의 사회적 기반
제5주	시민적 자유	시민적 자유
제6주	민권	민권
제7주	의회와 의사결정	여론
제8주	대통령	투표와 참여
제9주	행정부와 국내정책결정	언론
제10주	사회정책	정당
제11주	경제정책	이익집단
제12주	워싱턴의 실제	대통령
제13주	미국정치변동	관료
제14주	여론	사법부
제15주	정치참여	연방제
제16주	이익집단	-
제17주	정당	
제18주	언론	
제19주	캠페인과 유권자 결정	
제20주	대통령 선거	
제21주	의회선거 및 지방선거	

파악된 서구 민주주의의 틀을 따르고 있다. 현대정치의 주요 이슈들은 주로 민주화, 경제개혁, 인종갈등 등인데, 비교정치 개론에서 인종갈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민주화와 경제개혁, 심지어 인종갈등 같은 비서구적 이슈들이 구미적인 정치과정/제도의 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정치, 두 가지 종류의 정치제도/과정이 존재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두 과목의 강의내용에서도 미국 정치학의 양면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국정치 개론〉 과목들이다. 〈표

(표 9) 대표적 정치학 입문서의 내용

	James N. Danziger, <i>Understanding the Political World: A Comparative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i> , 8th ed.	Michael Roskin, et al., <i>Political Science: An Introduction</i> , 10th ed.
제1장	정치학과 인접학문 정치권력의 성격 정치학은 과학인가	정치적 지식 정치학의 성격
제2장	정치학 이론: 고전적 이론과 현대이론	정치 이론 규범 이론, 정치적 신념, 정치문화
제3장	국가, 국가건설 정부, 공공정책결정	정치 행위 개인적, 이익집단적, 정당 수준
제4장	헌법	신념과 행위에 대한 영향
제5장	정치체제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와 정치체제
제6장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제도 I: 구조 의회, 행정부, 사법부
제7장	정치문화, 정치사회화	정치제도 II: 제도적 배열
제8장	여론	정치경제
제9장	정치 커뮤니케이션 언론, 미디어	공공정책, 권력, 의사결정
제10장	이익집단	정치변동과 정치발전
제11장	정당과 정당체제	국제정치
제12장	선거와 투표	정치적 폭력
제13장	정부제도 국가형태, 선거제도, 연방주의제도	선진국의 정치
제14장	의회	개도국의 정치
제15장	대통령과 수상	이행국의 정치
제16장	관료와 관료제	-
제17장	사법제도와 사법부	
제18장	정치경제	
제19장	폭력과 혁명	
제20장	국제관계	
제21장	국제체제	

〈표 10〉 대표적 미국정치 입문서의 내용

	James Q. Wilson & John Dilulio, Jr., <i>American Government</i> , 10th ed.	Theodore J. Lowi, Benjamin Ginsberg, & Kenneth A. Shepsle, <i>American Government</i> , 9th ed.
제1장	미국정치연구의 성격	정치의 원리
제2장	헌법	건국과 제한
제3장	연방제	헌법의 원리: 연방제와 권력분립
제4장	미국정치문화	헌법의 원리: 시민적 자유와 민권
제5장	시민적 자유	의회
제6장	민권	대통령
제7장	여론	행정부와 관료
제8장	정치참여	사법부
제9장	정당	여론
제10장	선거와 캠페인	선거
제11장	이익집단	정당
제12장	언론	이익집단
제13장	의회	언론
제14장	대통령	공공정책과 경제
제15장	관료	사회정책
제16장	사법부	외교정책
제17장	정책결정과정	-
제18장	경제정책	
제19장	사회복지	
제20장	외교, 군사정책	
제21장	환경정책	
제22장	미국민주주의의 본질	

8)은 하버드 대학교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미국정치 개론〉 강의내용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새로운 시각”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 정책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과목 모두 표준화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미국 대학들에서 가르치는 〈미국정치 개론〉의 내용 역시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미국 정치과정과 제도에 대한 대단히 표준화된 내용으로 연방제,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정당, 이익집단, 선거 및 여론을 다룬다. 다른 하나는 헌법의 원리와 시민적 자유 및 민권을 다루는데, 이 주제들은 다

분히 시민교육적 성격을 지닌다. 미국 민주주의의 정통성, 우월성, 그리고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것이다.

기초 정치학에 대한 대학 교육의 이러한 성격들은 이 교과목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드러나 있다. 위 <표 9>와 <표 10>은 미국 대학에서 사용하는 정치학 입문 및 미국정치론 교과서들인데, 모두 8판 이상 출판되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교과서들이다. 먼저 정치학 개론 교과서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정치제도와 과정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문화, 선거와 투표, 정치참여와 여론 형성 등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제로 정치과정을 파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정치현실을 반영한 듯, 정치체제, 특히 독재체제를 다루는 부분과 정치변동이나 정치적 폭력을 다루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 후자에서 묘사되는 정치가 전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신조가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표 10>에서 소개되는 두 미국정치론 교과서는 미국 정치 연구에 있어서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을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과서는 대단히 닮아 있다. 건국과 제헌과정을 먼저 다루고, 헌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뒤,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정치과정을 기술하고 몇 가지 정책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체의 골격을 정치과정과 정치제도에 둬으로써 과정 중심의 미국 정치학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헌법 원리와 시민적 자유, 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설파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학의 양면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건국과정에 대한 서술이나 시민적 자유와 민권에 대한 판례사를 제외하면 역사적인 기술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학이 역사와 철저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

세계 정치학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정치학이 존재하는 듯하다. 첫째는 고대 그리스나 제자백가 시대, 어디로 소급하든, 정치현상에 대한 인간의 탐구활동으로 존재하는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이다. 둘째는 백년 전 사회과학의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제도화된 미국식 과학주의 정치학이다. 셋째는 각국의 문화적, 역사적, 물질적 환경에 “민감한,” 각국의 당대 현실을 중심으로 추구되는 실용적 정치학이다.

이차대전 이후 미국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학계에는 이 세 정치학이 섞이게 되었다.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서의 보편적 정치학, 분과학문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식 정치학, 그리고 사회 현실을 담아내려는 독자적 정치

학이 병존해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각국의 정치학들은 이 셋의 구성비와 융합의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두 번째 정치학이 압도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투고일 2008년 8월 14일

심사일 2008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8일

참고문헌

- 백창재·정병기. 2007. "로스의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문제." 『한국 정치연구』 16, No. 2, 1-25.
- Almond, Gabriel A. 1996. "Political Science: The History of the Discipline." in Robert E. Goodin and Hans-Dieter Klingemann.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50-96.
- _____. 1988. "Separate Tables: Schools and Sects in Political Science."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12. 828-42.
- Andrews, William G. ed. 1982. *International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Greenwood Press.
- Crick, Bernard. 1962. *In Defense of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59. *The American Science of Politics: Its Origins and Condi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nziger, James N. 2007. *Understanding the Political World: A Comparative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8th ed. Pearson Longman.
- Freeman, D. M. 1991. "The Making of a Discipline." in William Crotty, ed. *Political Science: Looking to the Futur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5-44.
- Goldman, Lawrence. 1998. "Excep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Reconsidered."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1, No. 1. 1-36.
- Goodin, Robert E. and Hans-Dieter Klingemann. 1998. "Political Science: The Discipline." in Goodin and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3-48.
- Gunnell, John G. 2002. "Handbooks and History: Is It Still the American Science of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3, No. 4. 339-54.

- _____. 2006. "Political Science: Orthodoxy and Heterodoxy." *The Good Society* 15, No. 1. 21-5.
- Katznelson, Ira and Helen Milner. 2002.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Discipline*. W. W. Norton.
- Lowi, Theodore J. Benjamin Ginsberg. and Kenneth A. Shepsle. 2006. *American Government*. W. W. Norton & Co. 9th ed.
- Marsh, David and Heather Savigny. 2004. "Political Science as a Broad Church: The Search for a Pluralist Discipline." *Politics* 24, No. 3. 155-68.
- Oren, Ido. 2003. *Our Enemies and Us: America's Rivalries and the Making of Political Science*. Cornell University Press.
- Roskin, Michael G. Robert L. Cord. James A. Medeiros. and Walter S. Jones. 2008. *Political Science: An Introduction*. 10th ed. Prentice Hall.
- Ross, Dorothy. 1991.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백창재 · 정병기 역. 2008.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서울: 나남.
- Sigelman, Lee. 2006. "The Coevolution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No. 4. 463-78.
- Somit, Albert and Joseph Tanenhaus. 1967.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llyn and Bacon.
- Stein, Michael B. 1995. "Major Factors in the Emergence of Political Science as a Discipline in Western Democra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and Germany." in Davis Easton, John G. Gunnell and Michael B. Stein, eds. *Regime and Discipline: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69-95.
- White, Leonard. 1950. "Political Science, Mid-Century." *Journal of Politics* 12, No. 1. 13-9.
- Wilson, James Q. and John J. Dilulio, Jr. 2006. *American Government*. 10th ed. Houghton Mifflin.

ABSTRACT

The Identity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hang-jae Baik | Seoul National University

So-jeong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science of politics as we know it was an invention of American science of politics a century ago. Since then, American political science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profess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cience” as a discipline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means that it is essential to define the identity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d evaluate its influence on Korean political scie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olitical science in Korea. With this in mind, I will deal with three topics. First, I will show the dominant status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in the world and search for various explanations for it. Second, after surveying the on-going debates regarding the identity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I will define its identity through looking at the historical process of its development. Finally, I will show how thes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re reflected in the education of political science at college level in the United States.

Keywords: political science, identity of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institutionalization as a discipline, professionalization as a discipline, Dorothy Ross, Korean political science